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2014년 7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재산과 자만

(집회 5, 1-8)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1장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1절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모든 것 위에 올림을 받으신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 저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에 의탁하게 도와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집회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재산을 믿지 말고 “넉넉하다.”고 말하지 마라.
- 2 너 자신과 네 힘을 붙좃지 말고 마음의 욕망을 따르지 마라.
- 3 “누가 나를 억누르리오?” 하고 말하지 마라.
주님께서 기필코 징벌하시리라.
- 4 “죄를 지었어도 내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은가?” 하지 마라.
주님께서서는 분노에 더디시기 때문이다.
- 5 속죄를 과신하지 마라. 죄에 죄를 쌓을 뿐이다.
- 6 “그분의 인자함이 크시니
수많은 내 죄악이 속죄받으리라.”고 말하지 마라.

정녕 자비도 분노도 다 그분께 있고
그분의 진노가 죄인들 위에 머무르리라.

⁷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늦추려 하지 마라.
정녕 주님의 분노가 갑자기 들이닥쳐
너는 징벌의 날에 완전히 망하리라.

⁸ 부정한 재산을 믿지 마라.
정녕 재난의 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리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자신을 ‘자만’에 빠지게 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거기에서 빠져 나온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집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루카복음 12장의 수확한 것이 너무 많은데도 나누지 않고 곡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쩌면 오늘날 재물을 모으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듯합니다.

한글 사전에 자만(自慢)의 뜻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냄’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질 경우 대개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며, 가질수록 집착하게 됩니다. 물론 재물을 소유한 정도와 재물에 대한 집착은 별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

으로 삼고 사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신명기 8,11)”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 3월 2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한 강론 중에 “소유를 위한 갈망으로 어지러워진 마음은 소유를 위한 갈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자주 부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재물에서 자기들의 안전을 찾는 중대한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재물에 사로잡힌 마음에는 신앙이 자리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을 뿐, 신앙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그것도 으뜸의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면, 그의 사랑은 자신의 부까지도 나누는 사랑으로 발전하고, 그 부를 연대와 발전의 계획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 . . (중략) 누구도 재물을 갖고 그분께 갚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이와 나누는 것만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가질 수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겸손되이 인정한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이웃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우리 각자가 한 달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을 정하시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우리 소공동체가 이달에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1장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궁 금 했 어 요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왜 세상에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질문에서 ‘왜?’ 라고 끊임없이 힐책하는 세상의 항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신 그분의 삶을 전하는 성경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그분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더욱이 세상에는 채워져야 할 고통의 뭍이 있으며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닥쳐온 고난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세상을 통해서 항상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이 하느님과 궁극적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신비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만, 세상의 고통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1베드 1,6)라고,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콜로 1,24)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금보다 훨씬 값진” 고통을 목숨으로 증거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복음인은 고통을 넘어 그분의 나라를 희망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오 18.20)

태평2구역 2반장 서옥주(유스티나)

찬미 예수님!

여황산의 지맥이 넘나드는 토성 고개를 넘어서면 이 충무공의 성지인 통제영의 성역 안에 8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태평동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당은 18개 구역의 소공동체가 있으며 반장님들의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긴 어르신들이지만 그 열성은 어느 본당과 비교를 해도 자랑할 만하답니다. 특히 옥지도 옥지공소에 사는 조레지나 반장님을 지면을 통해 자랑하고 싶습니다. 레지나 반장님은 태풍이 불어 배가 묶이지 않는 한 결석하지 않고 매월 모이는 소공동체장 월례회에 참석합니다. 이런 열정으로 어느



고장보다 무속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어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당 맞은편의 대몽지라는 아름다운 동산 밑으로 저희 태평2구역 2반 교우들의 보금자리가 있고 건너편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벽화 마을인 동피랑이 있습니다. 통영항을 바라보는 언덕배기에 자리한 동피랑은 철거될 뻔 했던 마을이었지만 어느 날 예쁜 벽화가 그려졌고 벽화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을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답니다.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전국에

모여드는 관광객으로 장사진을 이루는 것도 장관이지요.

저희 소공동체는 본당 가까이에 있다 보니 본당에 봉사할 기회가 많은 동시에 주님의 은총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산 교구에 소공동체가 도입된 이래로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소공동체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소공동체의 큰 자랑입니다.

과거엔 제법 많은 교우들이 살고 있었지만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젊은 세대는 아파트촌으로 떠나고 60세가 넘는 세대들만 생활하는 소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6~7세대가 모여 모임을 갖고 있지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오 18.20)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명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년에 한번은 성지나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을 찾아가 야외에서 모임을 가지며 친교와 단합으로 심신의 피로를 말끔히 날려 보내고 영,육으로 재충전하여 돌아옵니다.

소공동체모임 시 특별히 “생명의 말씀 정하기”순서에서는 저희 반원이 한 달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여 주방벽이나 방벽에다 붙여 놓고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5월 소공동체모임에서는 집회서 3장 8절의 “말과 행동으로 네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반원들은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아름다운 소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태평동성당 2구역 2반 반원들 〉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